

제목: "성령님을 통한 큰 변화"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던 초대 성도들은 약속을 받은 대로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은 많은 변화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그 변화를 통하여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주위와 이 세대가 변화할 것입니다. 어떠한 변화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1. 그들이 _____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2. 예수님과 더욱 _____ 만나게 되었습니다.
3. _____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 |
|------------------------------|-------------------------------|
|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
| Silk Wave 선교회 |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
|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
|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

| 지난 주 헌금 | |
|---------|--|
| 십일조 | |
| 주일 | |
| 합계 | |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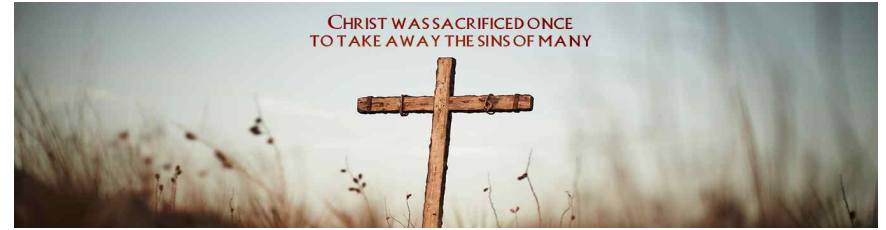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성령 강림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인도: 김성민 목사

12: 30 PM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Acts 2: 1-4 신약 188 페이지 Presider
- 말씀 "성령님을 통한 큰 변화" 김성민 목사
Message The Work of the Holy Spirit Rev. Kim
- 헌금/기도 (특순: 이경희, 서주영)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가장 좋은 커피 맛)

나는 솔직히 말해서 커피 맛을 잘 모른다. 그저 씹쓸하고 달면 맛있는 커피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커피 잔을 마주하며 앉아 있는 자리는 참 좋아한다. 그 분위기를 좋아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역시 어떤 커피가 더 맛이 있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한다. 진한 커피는 전부 좋은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다른 커피 가게를 찾는다. 혹시 나에게 맞는 커피 가게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맞는 커피 가게는 만나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럴까?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가끔 커피 맛이 좋을 때가 있다. 그것은 커피의 맛보다도 누구와 같이 마시는가?에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기분 좋은 만남 일 때에 또는 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때의 커피는 맛이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생각해 본다. 어느 교회나 교회는 같은 교회가 아닌가? 하지만 다르다면 교회의 문화가 조금 다를 것이고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르다. 하지만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나에게 어떠한 존재들인지에 따라 내가 느끼는 분위기는 많이 다를 것이다.

그러면 지금 내가 나오는 교회는 나에게 어떠한 교회인가? 정말 맛이 나는 교회인가? 아니면 얼얼얼한 맛을 어렵게 맛있다고 마시는 커피와 같지는 않은가?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커피 알을 갈아서 만든 최상의 맛을 내는 곳이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와 함께 마시는가?가 그 맛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일주일 동안 어렵게 살아온 시간들을 서로 위로하며 회복하는 곳이라면 그 곳은 맛 나는 곳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힘을 얻고 성도 서로를 통하여 사랑을 주고 또한 누리는 곳이라면 더 있고 싶은 곳이 된다. 그러니 맛이 날 수 밖에 없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가장 값진 그 곳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에서 가족 되게 하신 같은 교회 성도들 간에 있어야 할 분위기와 맛이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 향과 같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름다운 그 맛을 누리게 하신다. 우리교회가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숙제를 우리에게 주셨다.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저절로 생기는 분위기도 아니다.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갈 때 다른 커피 가게를 둘러볼 필요도 없다. 이곳이 나에게 가장 좋은 곳이 되었기 때문이다.

교회가 커피 가게는 결코 아니다. 하지만 커피 가게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성도들이 모이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교회. 한 번 모이면 헤어지기 아쉬운 교회. 서로에게 힘이 되고 향기가 되는 만남의 교회. 우리 교회가 그곳이 될 때에 값싼 커피를 끓여서 마신다고 해도 가장 맛있는 그 곳이 될 것이다.

아무리 찾아도 내 마음에 맞는 커피 가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들이 있으니 나의 마음이 기쁘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 | |
|--------------------|-------------------------------------------------------|
| Deep Roots Church: |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
| 백남일 선교사: |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개척교회에 새로이 세례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
| Silk Wave 선교회: |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
| 김인선 선교사: |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6월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 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5/6월 행사

6월 5일 (주) 성령 강림 주일

6.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